

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9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이종배 · 김선교  
고동진 · 박충권 · 서일준  
김소희 · 구자근 · 임이자  
박성훈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.(안 제19조 제1항 단서 신설).



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, 이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권리의 보호) ① 보훈급여 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	제19조(권리의 보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본인이 사망 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배 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, 이 경우 무공 영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